

여자배구 흥국생명에도 따스한 봄날 찾아올까

쌍둥이 자매 '학교 폭력 논란' 이후 2승6패
20일부터 IBK기업은행과 플레이오프 격돌

2020~2021시즌 배구팬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여자부 팀은 아마 흥국생명일 것이다. 시즌 초반은 긍정적인 요소들로 가득찼다. 자유계약선수(FA) 이재영을 잔류시키고 쌍둥이 자매인 이다영을 현대건설로부터 데려온 흥국생명은 '월드 스타' 김연경의 영입으로 화룡점정을 찍었다. 아무도 해내지 못한 개막 10연승을 질주할 때만 해도 모두가 흥국생명의 우승은 따 놓은 당상으로 여겼다. '흥벤져스(흥국생명+어벤져스)'의 위력을 확인한 이들의 관심은 흥국생명의 순위가 아닌 시즌 내내 몇

패나 당할까로 옮겨졌다. 꽃길만 걸을 듯 했던 흥국생명은 2월 초 엄청난 변수와 마주했다. 핵심 멤버인 이재영과 이다영의 학교 폭력 사실이 인터넷에 폭로된 것이다. 두 선수는 곧장 해당 내용을 시인하고 팀을 떠났다. 후폭풍은 상상 이상이었다. 주전 레프트와 세터가 빠진 흥국생명은 크게 휘청거렸다. 기존 백업 선수들 무 공백을 채우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실상가상으로 새 외국인 선수 브루나의 기량은 생각만큼 빠르게 올라오지 않았다. 결국 정규리그 우승팀이라는 칭호는 흥국생명이 아닌

GS칼텍스에 돌아갔다. 2위로 정규시즌을 마친 흥국생명은 20일부터 IBK기업은행과 3전 2선 승제의 플레이오프에 돌입한다. 전망은 무척 어둡다. 흥국생명은 학교 폭력 논란 이후 완전히 다른 팀이 됐다. 8경기 성적은 2승6패에 불과하다. 봄 배구에서 탈락한 KGC인삼공사와 한국도로공사를 한 차례씩 잡았을 뿐 나머지 경기는 맥없이 한판했다. 플레이오프 상대인 IBK기업은행에는 두 경기에서 한 세트도 따내지 못했다. 흥국생명 선수단은 화려하게 시작해 초라하게 막 내린 정규시즌을 뒤로 하고 포스트시즌 준비에 매진 중이다. 챔피언결정전까지 모두 끝나는 다음 달 초에는 톨코코스터 시즌의 진짜 결말을 알 수 있다.



'국가대표 이승윤 주축' 광주 남구 남양궁팀 창단

김승윤·임지완·이건희 등 4명 선수와 지도자 1명 구성
22일부터 27일까지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출전



광주 남구가 국가대표 이승윤을 주축으로 남양궁팀을 창단하고 도쿄 올림픽 대표팀 최종 선발전에 나선다. 광주 남구는 국가대표 이승윤과 김

승윤, 임지완, 이진희 등 4명의 선수와 지도자 1명으로 구성된 남양궁팀을 공식 창단했다고 17일 밝혔다. 남양궁 남구팀은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광주국제양궁장에 열리는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에 출전한다. 남구는 또 양궁팀 창단과 광주국제양궁장을 활용한 국제대회 유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9월 아시아 최고의 궁사를 가리는 아시아컵 2차 양궁대회가 펼쳐진다. 25개국을 대표하는 양궁선수 300명이 출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 양궁팀 김병내 단장은 "창단된 남양궁팀에서 세계적인 선수가 배출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남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광주국제양궁장을 활용해 세계 대회도 적극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최윤희기자

텍사스 지역지, 개막전 예상 로스터 26인서 양현종 제외

현지 언론들마다 예상 엇갈려...불펜 합류 노려야

메이저리그(MLB) 진입에 도전하고 있는 양현종(33·텍사스 레인저스)이 개막전 로스터에 포함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텍사스 지역지 델러스 모닝 뉴스는 17일(한국시간) 텍사스 구단의 개막전 로스터 26인 명단을 예상했다. 양현종은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 매체는 카일 김슨, 마이크 폴티네비치, 아리하라 고헤이, 카일 코디, 웨스 벤자민, 테일러 현, 한국계 투수 데인 더닝 등 7명이 선발 투수로 로스터에 합류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로스터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불펜 투수로는 호세 르클레, 맷 부시, 조던 라일스, 브렛 마틴, 조시 보츠, 헌터 우드를 꼽았다. 개막전 선발로 낙점된 김슨을 비롯해 폴티네비치, 아리하라의 선발 자리는 확정적이다. 코디와 벤자민, 더닝과 현 등 우완 투수와 좌완 투수가 짝을 이뤄 한 경기에 두 명의 선발 투수를 투입하는 식으로 4, 5선발을 꾸릴 전망이다. 델러스 모닝 뉴스의 전망대로라면 양현종은 불펜으로 빅리그 로스터에

합류하는 쪽을 노려야 한다. 이 매체는 "텍사스가 처음에 불펜을 6명으로 꾸리겠지만, 머지않아 7명으로 늘릴 것"이라고 전했다. 양현종의 개막전 로스터 진입에 대한 예상은 엇갈리고 있다. 델러스 모닝 뉴스만 해도 지난 2월 중순 양현종의 빅리그 로스터 진입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렸지만, 이번에는 로스터에 오르지 못할 것으로 봤다. 디에슬레틱은 양현종의 로스터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반면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SI)는 불확실하다고 점했다. 뉴스

축구협회 '손흥민 한일전 합류 여부 19~20일께 결정'

유관중이라 방역 지침 따라 반대할 수도... "토틸에서 언급 없어"



손흥민(29·토틸)의 한일전 합류 여부가 오는 주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17일 "토틸으로부터 손흥민의 부상이 심각하지 않다는 회신을 받았다"면서 "하지만 구단에서 보다 정밀한 검사를 한 뒤 19~20일께 차출과 관련된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3월 18일 오전 10시 25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일본 대표팀과 친선전을 치른다. 벤투 감독은 지난 15일 손흥민을 포함한 한일전 소집 명단 24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발표를 앞두고 열린 아스널과의 복련던 데비에서 손흥민이 허벅지 뒤근육(햄스트링)을 다쳐 전반 19분 만에 교체돼 변수가 생겼다. 협회는 곧바로 토틸 구단과 소통을 시도했고, 정확한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영국 매체 풋볼런던은 16일 "손흥민의 부상이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다"며 "이르면 오는 주말 아스톤 빌라와의 원정 경기에 돌아올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협회 관계자는 "토틸에서도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했다. 하

지만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부상 여부를 떠나 한일전이 유관중으로 열리면서 영국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토틸이 손흥민의 한일전 차출을 반대할 수도 있다. 영국 정부는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의 경우 귀국 후 곧바로 코로나 19 검사를 받아 음성 나오면 격리를 면제해주는 특별 규정을 시행해 대표팀 복귀 후 5일 이상 자가격리 시 소속팀이 대표팀 차출을 거부할 수 있는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영국 정부의 이 같은 특별 규정은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졌을 때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토틸 구단에선 그런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유관중 개최가 손흥민의 한일전 출격 변수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뛰는 황희찬(라이프치히)의 대표팀 차출 여부도 조만간 결정된다. 황희찬은 소속팀과 주 정부가 선수의 목적지와 여정을 확인한 뒤 격리 면제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고 있다. 격리 면제가 안 되면 황희찬을 제외하고 추가 발탁은 없다.

"가장 단단한 스프링캠프 자부" 올해 풀타임 선발 10승 목표



"아주 강해졌다". 맷 윌리엄스 KIA 타이거즈 감독이 사이드암 투수 임기영(28)의 구위를 칭찬했다. 직구의 스피드가 좋아지면서 강해졌다는 표현까지 썼다. 임기영은 이민우와 함께 3~4선발 후보로 꼽히고 있다. 윌리엄스 감독은 작년 시즌 두 투수에게 투자를 많이 했다. 모두 선발투수로만 나섰고,

데뷔 최다 이닝을 소화했다. 임기영은 127%이닝을 던졌다. 작년 아쉽게도 9승을 따냈다. NC와의 마지막 경기에서 야수 실책으로 다 잡은 데뷔 첫 10승을 놓쳤다. 9승 10패, ERA 5.15를 기록했다. 올해는 풀타임 선발투수로 10승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윌리엄스 감독은 16일 자체 연습경

기에 앞서 특별히 임기영에 대해 "몸상태가 아주 좋다. 본인이 아주 강해졌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다"며 칭찬했다. 이어 "수치로도 알 수 있다. 작년 후반기의 직구 구속과 비교하면 지금이 더 잘나오고 있다. 힘 있는 투구를 하고 있다. 만족한다"고 말했다. 임기영은 지난 7일 자체 연습경기에서 2%이닝 무피안타 1사구 1탈삼진 무실점, 13일 한화와의 광주 연습경기에서는 3이닝 1피안타 1볼넷 2탈삼진 1실점을 기록했다. 직구,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 투심을 구사하며 구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번 캠프에서는 자신의 변화구 주무기인 체인지업과 슬라이더, 투심을 더욱 갈고 닦고 있다. 데뷔 이후 가장 단단한 스프링캠프를 보냈다고 자부하고 있다. 체력훈련에도 많은 공을 들이며 풀타임 시즌을 보내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다. 윌리엄스 감독이 주목하는 직구의 최고 구속은 138km를 기록했다. 정규리그 개막에 들어가면 140km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K리그1 광주, 세르비아 대표 수비수 알렉스 영입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가 세르비아 국가대표 수비수 알렉스(28)를 영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알렉스는 2009년 프로 데뷔해 2016년 세르비아 2부리그 노비 사드로 이적, 2017~2018시즌 우승과 함께 1부리그 승격에 기여하는 등 5시즌 간 활약했다. 올해 1월에는 처음으로 세르비아

국가대표팀에 발탁돼 파나마와 친선 경기를 풀타임 소화하기도 했다. 광주 구단은 "188cm 75kg의 체격을 지닌 알렉스는 수비 시 위치 선정과 안정적인 볼 처리와 스피드가 강점이며, 정확한 킥과 빌드업으로 공수 전면에 다양한 능력을 갖췄다"라고 기대했다. 알렉스는 "자가격리 기간 개인 훈련으로 컨디션 유지에 노력했다"며 "광주 경기를 보며 투쟁심과 조직력이 좋은 팀이란 느낌을 받았다. 빨리 경기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